

【논문】

Husserl의 현상학과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

이 남 인

【주제분류】 현상학, 사회학, 현상학적 사회학

【주요어】 후설, 슈츠, 베버, 현상학적 사회학, 이해사회학, 현상학적 심리학, 초월론적 현상학, 사회적 존재론, 사회적 인식론, 현상학적 환원, 초월론적 주관, 지향성, 상호주관성

【요약문】 이 글의 목표는 Husserl의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해명하는 데 있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Schutz가 Husserl의 현상학을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갔으며 따라서 Husserl의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견해가 부당함을 밝히면서 후설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1장은 Weber의 이해사회학의 의의와 한계를 간단히 다룰 것이다. 거기에 이어 2장과 3장에서는 Husserl의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살펴볼

* 이 논문은 2009년에 창간된 *Schutzian Research* (Zeta Books)의 1권에 발표되었다. *Schutzian Research*는 창간호에서 영어뿐 아니라, 기타 다른 언어로 된 논문도 수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자에게 Schutz와 관련된 논문을 한글로 집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필자는 그 요청에 응해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의 학자들에게 *Schutzian Research* 창간소식을 알리고, 둘째, *Schutzian Research*에 발표된 이 논문을 한국의 학자들이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국의 학자들에게 이 논문을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Schutzian Research*의 책임편집인인 Michael Barber 교수 역시 필자와 나눈 이메일서신에서 필자의 논문을 한국의 학술지에 게재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것이다. 2장의 핵심적인 논지는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Husserl이 구상한 현상학적 심리학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Husserl은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해서뿐 아니라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해서도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영향을 미쳤는데, 3장에서는 바로 이 점이 해명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4장에서는 Husserl의 현상학 속에는 Schutz가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Schutz는 1932년에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초석을 놓은 작품인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¹⁾를 발표했다. 그는 이 책의 “서언”에서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작업이 Weber의 과학론적 저술을 다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말한다. Weber는 사회학을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그를 토대로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²⁾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Weber의 사회학이 그 방법적인 면에서 볼 때 “해석과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사회학”(die verstehende Soziologie)이라 불린다. Schutz에 의하면 Weber가 제기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것이어서 “사회과학의 모든 참된 이론을 위한 단초”(Schutz(1981), 9)가 될 수 있다. Schutz는 Weber가 제기한 문제를 현상학적으로 심화시켜 가면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간다. 바로 이처럼 Schutz가 Weber의 이해사회학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에 “이해사회학 입문”(Eine Einleitung in die verstehende Soziologie)이라는 부제를 달았던 것이다.

1) A. Schutz(1981), Der sinnhafte Aufbau der sozialen Welt, Frankfurt/M.: Suhrkamp, 9.

2) M. Weber(1988),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이처럼 Weber의 이해사회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ber는 “사회적 행위”, “의미” 등을 비롯해 사회학의 근본 주제와 방법 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 Schutz는 Weber의 이해사회학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과학적 문제의 뿌리를 의식의 삶이라는 근본적인 사실까지 소급해서 추적해 들어가려는”(Schutz(1981), 9) 작업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그는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런데 그가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것은 바로 Husserl의 현상학이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³⁾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한 Husserl의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표는 Husserl의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전개를 위해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선 1장에서 Weber의 이해사회학의 의의와 한계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2장에서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장에서 Husserl의 현상학 속에는 현상학적 사회학을 위해서 Schutz가 수용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의 현상학과 무관하다는 통념

3)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의 현상학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연구자로서 이 논문에서는 R. E. Best를 살펴볼게 될 것이다. Best의 견해에 대한 소개 및 그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3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연구자로는 J. L. Heap/P. A. Roth(1973), “On Phenomenological Sociology”,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가 Best를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 연구자들 중에서 Best가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의 현상학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이 글의 논지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Husserl의 저술과 Schutz의 저술을 꼼꼼하게 읽어본 독자들,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본 독자들에게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I. Weber의 이해사회학의 의의와 한계

Weber의 이해 사회학은 두 가지 차원의 사회학을 포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경험적 차원의 이해사회학과 이론적 차원, 즉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이다. 경험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회적 행위를 이해, 해석하고 그의 인과 관계를 해명하고자 시도하는 이해사회학이며,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은 경험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의 이론적 토대를 탐구하는 이해사회학이다.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가면서 Schutz의 관심이 주로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의 논의 전개를 위하여 Weber가 발전시킨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의 구조만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것이 있는데, 1) 이해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대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존재론과 2) 경험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이 자신의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방법의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인식론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해사회학의 정의를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하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론의 과제와 사회적 인식론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이해사회학의 대상이 “사회적 행위”라고 언급했는데, 사회적 존재론

4) 이 글에서는 본질적 차원의 이해사회학을 간단히 본질적 이해사회학이라 부르기로 한다. 본질적 이해사회학은 본질적 사회학의 한 유형이다.

은 사회적 행위가 무엇이며 사회적 행위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것처럼 구성된 다양한 사회는 어떤 구조를 보이는지 등을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론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행위 및 다양한 유형의 사회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구조 내지 인식의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Schutz는 이해사회학을 전개해 나간 Weber를 사회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태자체로!”라는 현상학의 근본요청에 충실하게 현상학적 사회학을 정립해 나가려 시도했던 사회학자로 평가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Schutz는 Weber가 이룩한 가장 커다란 공적으로 “형이상학적 사변대신에 사회적 존재에 대한 단적인, 그러나 진정한 기술을 사회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Schutz(1981), 13)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Schutz의 평가에 의하면 Weber 이전의 사회학자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적-형이상학적 신념을 아무런 의심없이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전제 아래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을 전개시키려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이전의 사회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Weber는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Wertfreiheit der Sozialwissenschaften) (Schutz(1981), 13)을 옹호하고 사회적 행위, 사회적 관계, 질서 등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전제의 구속도 받지 않은 채 사회 현상이라는 사태에 충실한 사회학을 전개시키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Schutz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Weber는 “사회적 행위의 참되며 근원적인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Schutz(1981), 14)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존재론과 사회적 인식론을 아우르는 그의 본질적 이해사회학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우선 Weber의 사회적 존재론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

를 들어 그의 사회적 존재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사회적 행위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행위, 다시 말해 유의미한 행동이 무의미한 행동으로 규정되는 단순한 행동과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⁵⁾ Weber가 양자를 구별하는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양자의 경계가 “유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세계는 동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서로 질적으로 구별되는 다양한 부분영역들을 포함하는 세계인데, Weber의 사회적 존재론은 이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Weber의 사회적 인식론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인식론이 사회적 행위를 연구할 경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행위와 결부된 주관적으로 사념된 의미를 탐구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론은 타인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⁶⁾ 그러나 Weber는 사회적 인식론을 전개시키면서 타인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전제하고 있을 뿐 타인에 대한 경험이 어떤 구조를 보이는지의 문제는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세계의 다양한 부분영역들은 동일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데, Weber의 사회적 인식론은 이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Weber의 천재성은 그가 의미의 문제를 사회학의 핵심문제로 간주하면서 이해사회학을 전개해 나갔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해사회학은 방금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행위, 타인 경험의 구조, 동기,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 등 이해사회학의 근본개념들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나름대로 커다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Schutz의 철학적 과제는 이처럼 Weber에게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이해사회학의 근본개념들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그를

5) Weber의 사회적 행위 개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Schutz(1981), 26 이하 참조.

6) 이 점에 대해서는 Schutz(1981), 28쪽 이하 참조.

통해 “사회세계의 의미구조”를 해명하면서 Weber와는 달리 이해사회학을 철학적으로 올바르게 정초시키는데 있다. 말하자면 Schutz의 철학적 과제는 바로 Weber를 통해 출범하긴 했지만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해사회학을 참다운 의미의 이해사회학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II.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

그런데 Schutz가 Weber의 이해사회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것은 바로 Husserl의 현상학이다. Schutz는 Husserl이 발전시킨 다양한 현상학적 이론들을 광범위하게 응용하면서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시켜 나갔다. Husserl은 『논리연구』의 출간에서 시작해 말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 중에서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이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우선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Husserl이 발전시킨 현상학적 심리학은 심리현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Husserl은 다양한 유형의 심리현상의 본질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심리현상의 본질구조를 밝혀내는 일을 현상학적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 사물에 대한 외부지각(äußere Wahrnehmung)을 예로 들어 심리현상의 본질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⁷⁾

7)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구상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남

외부지각은 우선 지각대상을 생생하게(leibhaft) 떠올린다는 점에서 체험자체에 대한 반성적인 내적지각(immanente Wahrnehmung)과 유사한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외부지각이 내적지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의 지향적 구조가 내적지각의 지향적 구조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내적지각의 경우 지각대상, 즉 체험자체가 필증적 명증의 양상에서 의심할 수 없이 지각가능하지만 외부지각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지각의 대상은 늘 의심가능하게 경험된다. 그리고 외부지각은 지향적 대상을 그것 자체로 떠올린다는(selbstgeben) 점에서 기억과 유사한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부지각과 기억은 모두 대상 자체를 떠올리는 작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지각은 기억과는 다른 본질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지각이 지각대상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리는 지향 체험인데 반해 기억은 기억의 대상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리는 지향 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종류의 심리현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외부지각의 본질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아닌 외부지각에 대한 기술적 분석(deskriptive Analyse)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비단 외부지각과 관련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다양한 유형의 지향체험—외부지각, 내적지각, 본질인식, 기억, 예기, 상상, 그림지각, 사진지각, 표상작용, 판단작용, 정서작용, 의지작용, 욕구작용 등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들 각각의 본질적인 지향적 구조를 밝혀냄을 목표로 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심리현상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행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도 예외가 아니며 우리는 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의 본질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전개되는 심리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

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의 1장을 참조. 본 논문의 몇몇 부분에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곳이 있는데, 지면 관계상 그에 대해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면 상인과 흥정을 할 경우 나의 심리현상과 그 상인의 심리현상은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그때 전개되는 나의 심리현상과 학생들의 심리현상 역시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 혼자서 연구실에 앉아 연구에 몰두할 때 전개되는 나의 심리현상이나 나 혼자서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때 전개되는 심리현상은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을 통해 사회가 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을 통해 그렇게 구성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은 바로 본질적 사회학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직결된다. 이 경우 본질적 사회학은 1) 사회라는 현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존재론과 2) 사회라는 현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인식론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사회 현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본질적 사회학은 경험적 사회학과 구별된다. 양자 모두 사회 현상을 탐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경험적 사회학이 다양한 사회 현상을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경험적 사실들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험적 사실들의 다양한 변화가능한 측면을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해 본질적 사회학은 이러한 변화가능한 측면 너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변적인 본질적 구조들을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경험적 사회학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만 타당한 가변적 진리를 추구하는 데 반해 본질적 사회학은 실제로 존재했거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도 타당한 본질적인 진리를 추구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험적 사회학의 명제들이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등이 바뀔 때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제한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질적 사회학의 명제들은 역사적 제약,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무제한적 타당성을 지닌다.

Husserl은 본질적 사회학을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전개해 나가면서 본질적 사회학의 한 유형인 사회적 존재론을 전개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Husserliana* 13권으로 출간된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I』의 부록텍스트 17이다. 이 부록텍스트는 “구체적인 사회적 대상 및 형성물의 소여와 그와 연관된 개념들에 대한 해명. 사회적 존재론과 기술적 존재론”⁸⁾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제목이 암시하듯이 Husserl은 거기서 친구집단, 가족, 독서모임, 국가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의 본질구조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존재론”, 다시 말해 존재론적 사회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본질적 사회학의 또 다른 유형인 사회적 인식론을 전개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이념들 II』의 51절의 말미에 등장하는 “첨언”(Hua IV, 200)으로서 그는 이 “첨언”에서 “사회적 경험”(soziale Erfahrung)의 구조를 분석하려 시도한다. 이 경우 사회적 경험이란 그 안에서 바로 사회적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대상을 경험한다 함은 바로 사회적 대상을 “이해함”(verstehen)을 뜻한다.

그런데 Schutz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그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Husserl이 전개시킨 현상학적 심리학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심리학 중에서 상호주관적인 심리현상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삼는 본질적 사회학에 해당한다. 이 점과 관련해 Schutz는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에서 “이제 우리는—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3부와 4부에서—당연히 현상학적 환원 일반을 수행할 때 드러나게 되는 초월론적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도외시하면서

8) 독일어 원제목은 “Die Gegebenheit konkreter sozialer Gegenständlichkeiten und Gebilde und die Klärung auf sie bezüglicher Begriffe. Soziale Ontologie und deskriptive Soziologie”(Hua XIII, 98) 이다.

[...] Husserl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순수한 상호주관성의 심리학인 바, 저 ‘현상학적 심리학’을 전개한다 [...]”(Schutz(1981), 56)고 천명한다. 말하자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미완으로 남아 있던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적 심리학을 완성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Schutz는 순수한 상호주관성의 심리학, 즉 본질적 사회학을 일반사회학(General Sociology)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향적 심리학(Intentional Psychology) 내지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이라 부르기도 한다.⁹⁾ 그런데 그가 순수한 상호주관성의 심리학으로서의 저 현상학적 심리학을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Schutz(1981), 56)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질적 사회학으로서의 상호주관성의 심리학은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의 배제와 함께 초월론적 환원을 수행할 때 전개될 수 있는 초월론적 현상학, 다시 말해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이 구상했던 본질적 사회학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Husserl이 구상했던 본질적 사회학은 사회적 존재론과 사회적 인식론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본질적 사회학으로 전개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 역시 두 가지 유형의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3부는 “타자이해 이론의 근본 특징”을 해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명은 사회적 인식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

9) A. Schutz(1962),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32, 137; Schutz(1981), 56 참조. L. Embree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Schutz의 문화과학이론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Embree, L.(2007), “The Nature and Role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in The Theory of the Cultural Sciences of Alfred Schutz”, in: *The Future of Applied Phenomenology* (proceeding for The 2nd Conference of Phenomenology as Bridge between East and West, February 11-13, 2007, Seoul)

표로 하는 사회적 인식론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책의 4부 D장과 5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념형”(Idealtypus)에 대한 논의 (Schutz(1981), 318 이하)와 5부의 46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미 적합성”에 대한 논의(Schutz(1981), 330 이하) 역시 사회적 인식의 본질구조에 대한 논의로서 그것들 역시 사회적 인식론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책의 4부는 “사회적 세계의 구조 분석. 사회적 환경세계, 공동세계, 선대들의 세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러한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4부는 대부분 사회적 세계의 본질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4부의 “입문”(A장)에 이어 B장은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위, 사회적 관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C장은 B장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환경세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D장과 E장은 각각 “사회적 공동세계”와 “선대들의 세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논의는 사회적 존재론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III.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

그런데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 못지않게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 즉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구성적 현상학이다.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행위, 의미, 동기 등 이해사회학의 핵심개념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및 세계내 대상들의 초월론적 구성의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그 정체가 뿌리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의 의미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대상의 의미가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서 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공에 대한 지각을 검토하면서 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전면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후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커다란 공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며 이 지각의 맨 처음 단계에서(t_0) 공의 빨간 면이 우리에게 지각되었고 공이 서서히 돌아가면서 다음 순간(t_1)에 공의 노란 면이 지각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이 공의 노란 면이 지각되기 시작한 이 순간(t_1) 이 공은 일차적으로 “전면이 부분적으로 붉고 부분적으로 노란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우리에게 지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면이 부분적으로 붉고 부분적으로 노란 사물”로서의 공뿐만은 아니다. 물론 이 단계의 지각에서 이 공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전면이 부분적으로 붉고 부분적으로 노란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성해보면 우리는 이 순간 이 공이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이미 “한 면은 붉고 다른 한 면은 부분적으로 노랗고 부분적으로 비규정적인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지각되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향체험으로서의 외부지각은 이처럼 실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각의 지향성이 과거에서 이미 주어진 의미와 현재 주어진 의미를 종합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새로운 의미를 지향하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Husserl은 이처럼 외부지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실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하는 의식의 작용, 혹은 더 높은 단계의 새로운 의미를 지향하면서 파악하는 작용을 “구성작용”(Konstitution)이라고 부른다.¹⁰⁾

이 공에 대한 지각의 예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대상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지니는 의미는 그 대상을 경험하는 주관

10) 구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남인, 『현상학과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의 1장을 참조.

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데, 이처럼 그 어떤 대상을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구성하는 주관이 다름 아닌 초월론적 현상학의 핵심 개념인 초월론적 주관이다. 말하자면 초월론적 주관은 대상을 만나면서 매순간 그 대상을 어떤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구성하면서 경험하는 주관이다. 따라서 그 어떤 대상의 의미를 뿌리에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구성, 초월론적 주관 등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그의 정체를 뿌리에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사회학의 근본개념인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 즉 어떤 행위 주체가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는 의미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행위 주체가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는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야말로 그 행위를 특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 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사회학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인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가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 작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초적인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해사회학의 모든 개념들 역시 그것들의 정체를 그 근원에서부터 남김없이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적 행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세계, 공동 세계, 선대들의 세계, 동기, 이념형, 의미적합성 등 이해사회학의 모든 핵심적인 개념들이 속한다. 물론 이러한 이해사회학의 모든 핵심적인 개념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 작용뿐 아니라, 상호주관적 유대 속에서 존재하는 초월론적 상호주관의 구성 작용을 총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를 비롯해 이해사회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의 배제를 함축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Schutz 역시 의미를 비롯해 이해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과 관

련하여 그는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의 제1부를 마무리하는 곳에서 “그때그때 고유한 지속에서 유의미한 체험의 구성”이라는 제목을 단 제2부의 분석, 즉 내적 시간의식에 대한 분석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래의 연구가 지니는 현상학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분석하게 될 내적시간의식에 있어서의 구성현상에 대한 분석은 ‘현상학적으로 환원된’ 의식의 영역 내부에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Husserl이 『이념들 I』의 제2부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자연적 세계의 ‘괄호치기’(‘배제’), 즉 나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세계의 정립에 대한 철저한 태도변경(‘판단중지’)의 수행을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한에서만 현상학적 환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세속적인 사회성 속에서 의미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책의 의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론적 경험의 획득과 그것을 넘어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속에 머무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chutz(1981), 56).

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Schutz는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비록 그것이 내적의식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얻는데 필요한 한에서 이기는 하지만—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속에서 수행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은 아니다.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Schutz는 현상학적 사회학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사회적 현상의 정체가 그 뿌리에서부터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 내용들은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현상학적 사회학을 위해서 여러 모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

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 즉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구성적 현상학과 자연적 태도에서의 구성적 현상학 사이에 일종의 평행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평행관계에 의하면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 속에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대응하며 그 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초월론적 주관에는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리학적 주관이 대응한다. 양자 사이의 대응관계에 따르면 초월론적 태도에서 초월론적 주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관은 우리가 태도변경을 통해 자연적 태도로 이행할 경우 심리학적 주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거꾸로 자연적 태도에서 심리학적 주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관은 우리가 태도변경을 통해 초월론적 태도로 이행할 경우 초월론적 주관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과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평행관계 때문에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 얻은 일체의 것들은 우리가 태도변경을 통해 자연적 태도로 이행할 경우 바로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말하자면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적 분석결과들은 나름대로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이다.¹¹⁾ 바로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결과가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Schutz는 “사회과학을 현상학적으로 정초하는 일”(Schutz(1962), 119)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Husserl은 현상학적 심리학, 즉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서 뿐 아니라, 초월론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을 통해서도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

11) Schutz(1981), 56. 이점에 대해서는 A. Schutz(1962),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32, 139, 149 등을 참조.

학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현상학적 사회학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개진된 적이 있는바, Husserl의 현상학의 구상과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구상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견해에 대해 잠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대표적인 예는 R. E. Best이다. 그는 197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 선보인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의 현상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상학적” 사회학이라 불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과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다.¹²⁾ 그에 의하면, 흔히 현상학적 사회학을 옹호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과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하며 따라서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이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경험과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될 수 없다. Best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Schutz는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Best의 견해는 Schutz와 Husserl의 관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 일부만을 보고 그것을 과장하면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이다. 물론 Best의 주장대로 Schutz가 제5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선보인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이론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³⁾

12) R. E. Best(1975), “New Directions in Sociological Theory? A Critical Note on Phenomenological Sociology and Its Antecedents”,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6/2.

13) A. Schutz(1957), “Das Problem der transzendentalen Intersubjektivität bei Husserl”, in: *Philosophische Rundschau* 5.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제5<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전개된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에 대한 Schutz의 비판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Schutz가 제5<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전개된 상호주관성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는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과 관련해 “이처럼 현상학의 경우 타인 경험의 문제는 어두운 구석일 필요가 없는데, 이처럼 어두운 구석은 유아론, 심리학주의, 상대주의의 유령이 출몰하기 때문에 단지 철학의 초심자들이나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Schutz(1962), 124)라고 말하면서 독자들이 Husserl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경우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Schutz가 추구하는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과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행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결과들은 태도변경을 통해 그대로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 응용되면서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앞서도 지적되었듯이—Schutz가 추구하는 사회학은 현상학적 사회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며 그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경험과 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사회학과 초월론적 현상학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Best가 Schutz의 사회학과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단절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양자 사이의 총체적인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Husserl이 수행한 여러 가지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내용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적 태도의 구성적 현상학으로서의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의 전개과정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Schutz는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 결과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응용하

현상학을 비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후설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전체를 비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Husserl이 제5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선보인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이외에도 다양한 여타의 유형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전개시켰으며 Schutz가 Husserl이 발전시킨 이러한 여타의 유형의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면서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1959년에 출간된 한 논문에서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 결과가 현상학적 사회학의 전개과정에서 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¹⁴⁾,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필자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학적 연구대상 중의 하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이며 사회적 행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일반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름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유의미한 행위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Husserl이 이루어놓은 현상학적 분석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행위는 언제나 기획함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획함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사태를 상상속에서 앞서 그려보는 작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사태를 상상속에서 앞서 그려보는 작용”이란 Husserl이 『이념들 I』에서 분석하고 있는 “중립적 변양”(Neutralitätsmodifikation)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립적 변양에 대한 Husserl의 분석은 행위가 지닌 기획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획된 사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기의 관계뿐 아니라 기획된 사태와 그에 따르는 행위 사이의 관계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들의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내적시간 의식에 대한 Husserl의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모든 행위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침전되어 저장된 지식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장된 지식들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을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대, 예측 등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늘 다시 할 수 있다”(Ich kann immer wieder)라는 사태에 대한 Husserl의 분석은 행위와 관련된 저장된 지식 및 기대, 예측 등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 나아가 저장된 지식들은 그

14) Schutz(1962), 145 이하.

명료성에 있어서 볼 때 가장 명료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불명료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저장된 지식들이 이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의 관심과 주의가 지식들을 향해 있었고 지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되면서 주체의 의식에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료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심과 주의를 저장된 지식들의 다양한 영역이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 해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Husserl은 관심, 주의변양, 종합방식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그의 분석은 저장된 지식들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 모든 행위는 선택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선택은 여러 가지 가능한 행위 중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능성, “할 수 있음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 형식적 실천론에 대한 Husserl의 분석은 자연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지닌 선택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4) 내가 자연적 태도에서 타인을 직접대면관계에서 만날 경우 나와 타인은 동일한 생활세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신체를 방위영점으로 생각하면서 이 영점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생활세계를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면서 경험하고 타인은 그의 신체를 방위영점으로 생각하면서 그 영점을 중심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생활세계를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면서 경험한다. 더 나아가 나와 타인은 이처럼 생활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점을 바꿀 수 있으며 이처럼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서로 다르게 경험되는 생활세계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생활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처럼 “여기”, “저기”, “관점의 변화” 등의 현상은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초월론적 태도에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경험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은 자연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의 경

험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언어, 신화, 종교, 예술 등의 상징체계는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다. 일반적 사회학은 상징의 근본 구조는 무엇이며 다양한 유형의 상징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Husserl은 상징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논리연구』에서 의미와 표현, 의미부여작용과 의미충족작용, 기호, 표시, 표지 등을 분석하면서 상징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분석된 타인의 심리작용과 타인의 신체적 표현 사이의 관계는 어떤 사태와 그 사태에 대한 기호 혹은 상징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간접제시”(Appräsentation)에 대한 Husserl의 분석은 모두 어떤 사태와 그에 대한 기호 혹은 상징의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Husserl이 수행한 이러한 다양한 분석들은 일반사회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과 관련해 상징체계가 지니는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 사회적 세계는 친밀성, 익명성, 거리와 근접성 등에 따라 동시대인의 세계, 선대인들의 세계, 후대인들의 세계 등 다양한 세계로 구별되며 이처럼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세계는 나름의 고유한 경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일차적으로 선술어적 경험이며 유형화된 경험이다. 따라서 사회세계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선술어적 경험의 문제, 유형화의 문제 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Husserl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입장에서 선술어적 경험의 문제와 유형화의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분석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험의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Schutz는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으로부터 끊임없이 영감을 받아가면서 Weber의 이해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참다운 의미의 이해사회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Best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Husserl의 현상학과 Schutz의 현상학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Husserl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한 가지 유형인 상호주관성의 심리학, 즉 본질적 사회학과 동일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Schutz는 Husserl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본질적 사회학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Husserl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Husserl의 경우 현상학적 심리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을 정초 토대로 필요로 하듯이 Schutz의 경우에도 현상학적 사회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정초 토대로 필요로 한다.

이처럼 Schutz가 Husserl의 현상학으로부터 많은 통찰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usserl의 현상학 안에는 Schutz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Schutz가 이해하고 있는 Husserl의 현상학이 Husserl의 현상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hutz 스스로 Husserl의 현상학이 현상학적 사회학의 정초를 위해서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의의는 Husserl의 유고들이 충분히 연구된 후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¹⁵⁾ 알 수 있듯이 Schutz는 Husserl의 유고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Husserl의 현상학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전개해 나갔다. 예를 들어 그는 1940년에 출간된 “Phenome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라는 논문¹⁶⁾을 집필하면

15) Schutz(1962), 118.

서도 그 당시까지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Husserl의 현상학, 즉 Husserl이 생전에 발표한 작품들인 Ideen I(Hua III), FTL(Hua XVII), CM(Hua I), Krisis(Hua VI) 등에 나타난 현상학적 분석들만을 응용하면서 현상학적 사회학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에 나타난 Husserl의 현상학은 Husserl의 현상학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면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Husserl의 현상학의 의식철학적 성격 내지 관념론적 성격이다. 비록 Schutz가 『위기』(Hua VI)를 염두에 두면서 “Husserl의 후기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유노선”(Schutz(1962), 133)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선 역시 유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일면적임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위기』를 포함해 앞서 지적된 작품들에는 의식철학 내지 일면적인 관념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 예를 들어 수동적 종합의 현상학, 운동감각의 현상학, 본능의 현상학 등이 거의 전개되고 있지 않거나 전개되고 있을 경우에도 충분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일면적인 의식철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은 현상학적 사회학 전반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 있어서는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Husserl이 발전시켰으나 Schutz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투 고 일: 2011. 10. 29.
 심사완료일: 2011. 11. 9.
 게재확정일: 2011. 11. 10.

이남인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Best, R. E., “New Directions in Sociological Theory? A Critical Note on Phenomenological Sociology and Its Antecedents”, 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6/2, 1975.
- Embree, L., “The Nature and Role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in The Theory of the Cultural Sciences of Alfred Schutz”, in: *The Future of Applied Phenomenology* (proceeding for The 2nd Conference of Phenomenology as Bridge between East and West, February 11-13, 2007, Seoul), 2007.
- Heap, J. L./P. A. Roth, “On Phenomenological Sociology”¹,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1973.
- Husserl, E.,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I, 『데카르트적 성찰』), 1950.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Phaenomenologische Untersuchungen zur Konstitution*,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IV, 『이념들 II』), 1952.
- _____,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VI, 『위기』), 1954.
- _____, *Zur Phänomenologie des inneren Zeitbewußtseins (1893-1917)*,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X, 『내적 시간의식의 현상학』), 1966.
- _____,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Erster Teil: 1905-1920*,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XIII, 『상호주관성 I』), 1973a.
- _____,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 dem Nachlass. Zweiter Teil: 1921-1928*,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XIV, 『상호주관성 II』), 1973b.
- _____,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Texte aus dem Nachlass. Dritter Teil: 1929-1935*,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XV, 『상호주관성 III』), 1973c.
- _____,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 Versuch einer Kritik der logischen Vernunft*,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4. (Hua XVII, 『논리학』), 1974.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reine Phänomenologie. 1. Halbband. Text der 1.-3. Auflage*, Den Haag: Martinus Nijhoff. (Hua III/1, 『이념들 I』), 1976.
-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und Theorie der Erkenntnis. Erster Teil*,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4. (Hua XIX/1, 『논리연구 II/1』), 1984a.
-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und Theorie der Erkenntnis. Zweiter Teil*,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4. (Hua XIX/2, 『논리연구 II/2』), 1984b.
- Schutz, A.,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 _____, “Das Problem der transzendentalen Intersubjektivität bei Husserl”, in: *Philosophische Rundschau* 5, 1957.
- _____, *Der sinnhafte Aufbau der sozialen Welt*, Frankfurt/M.: Suhrkamp, 1981.
- Weber, W.,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ß der verstehenden Soziologie*,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85.

_____,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88.

ABSTRACT

Husserl's Phenomenology and Schutz's Phenomenological Sociology

Lee, Nam-I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influence of Husserl's phenomenology upon Schutz's phenomenological sociology. In developing his phenomenological sociology, although Schutz was deeply influenced by Weber, he considers that the interpretative sociology developed by the latter has some difficulties. It is Husserl's phenomenology that enabled hi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Weber's interpretative sociology and to found a phenomenological sociology as an interpretative sociology in a true sense. In section 1, I will deal with the significance and difficulties of Weber's interpretative sociology. In section 2, I will deal with the influence of Husserl's phenomenological psychology. In section 3, the influence of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on Schutz's phenomenological sociology is address, and in section 4, I note that there are some motives in Husserl's later phenomenology that could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phenomenological sociology.

Keywords: Husserl, Schutz, Weber, Phenomenological Sociology, Interpretative Sociology,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Social Ontology, Social Epistemology, Phenomenological Reduction, Intentionality, Intersubjectivity

